|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력 서** |      |  |  |  |  | | --- | --- | --- | --- | |  |  |  |  |   **기본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 | 최종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면허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A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이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신상정보**   |  |  | | --- | --- | |  |  | |  |  |   **주요활동 및 사회경험 동영상 가이드 보기**   |  | | --- | | **지원동기**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수하며 C, C#, AVR Studio, Android Studio 등의 여러 언어와 툴을 배우며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습니다. 팀 안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 진행된 코딩 작업이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디버깅 과정에서 발생되는 버그들을 차근차근 해결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깨달음의 즐거움과 문제해결의 성취감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 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습득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펌웨어, 임베디드 개발을 해가고 싶습니다. | | **성장과정** | | “생각+손=현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공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이 나의 손을 거쳐서 현실로 만들어졌을 때의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엔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과학상자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회색의 기다란 막대, 은색 나사,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평평한 직사각형의 부품들은 전혀 연관성 없어 보였으나 각각의 부품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다 보면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이 현실로 만들어졌고, 완성품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레곤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께서는 “생각+손=현실” 이라는 공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 도구들은 방금 언급한 과학상자, 레고, 색종이 외에도 갖가지 만들기 관련 도구들이 있습니다. 레고를 사용해 집이나 비행기, 자동차들을 만들어서 TV 위에 올려놓고 자랑하기도 했고, 어떤 방학 때는 색종이 접기에 빠져 종류별 비행기, 학, 장미, 옷 등등 만들어 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몰두하며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생각+손=현실” 이란 공식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지지와 함께 자신감 있게 자라왔습니다. | | **성격의 장단점** | | “ 확실한, 효율적인 그러나 사랑하는 ”  저는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흠이 보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는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는 효율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가지고 다니며 각각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마다 꺼내보곤 합니다. 일상의 한 예로 김해의 집 근처 김해시청 경전철역에서 학교가 있는 부경대 지하철역까지 오는 방법을 설명해보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그 이후에 있는 김해시청 역의 경전철 출발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발걸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환승하는 사상역이 다가오면 또 경전철 도착시간과 지하철 출발시간을 맞춰보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발걸음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도 약 20분이라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일처리와 효율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으로 행동하게 될 때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강요하게 된다면 분명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것이며 그 벽은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팀워크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바라봤을 때, 팀 구성원 개개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빠트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확실함과 효율적임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 **프로젝트 경험** | |